

韓國婦人の 婚前妊娠에 관한 研究

	1. 緒 論
△	2. 資 料
目	3. 結婚年度 및 結婚年齡
	4. 最長居住地 및 出生地
次	5. 婚前教育 및 就業
▽	6. 要約 및 結論

1. 緒 論

婚前妊娠의 대부분은 願한 妊娠이 아니며, 이는 女性 자신의 將來, 社會的 問題, 人口學的 問題 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60年代 이후 社會·經濟·文化的으로 급격한 變化가 이루어졌고, 西歐文化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價値觀과 態度는 傳統的인 것과 대치 또는 혼합됨으로써 婚前妊娠은 높아질 수 있는 환경에 있다.

婚前妊娠이 社會나 國家에 따라 일으키는 問題는 다를 수 있다. 美國에서 혼전임신은 私生兒 問題와 관련이 깊다. 첫회 妊娠중 非合法的 出生은 43.6%였고, 첫 妊娠의 74.5%¹⁾가 혼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報告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全出生의 대부분이 合法的 出生(legitimate births)이기 때문에 美國의 경우와 다르다.

1960年以後 우리나라 婦人の 年齡別 出產率은 30歲以上에서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29歲이하에서 피임실천율이 증가하고 결혼연령의 증가로 가임부인수비율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29歲以下の 出產率은 큰 변화가 없다. 이들 젊은 年齡層의 出產力이 변동되지 않은 原因은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그러나 그 原因의 하나는 婚前妊娠의 頻度에 기인될 수 있다.

한편 家族計劃事業의 重點이 29歲以下の 婦人에게 치중되어야 한다면, 그 對象은 婚前期 女性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동시에 이들의 婚前妊娠은 啓蒙·教育計劃의 주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婚前妊娠에 관한 研究에는 美國에서 1971년에 全國의으로 15~19歲의 10代 女性(未婚 및 既婚)을 대상으로 婚前性交, 避妊 및 妊娠 등에 대한 調査가 있다.

Zelnik과 Kantner에 의하여 婚前性交와 避妊實態²⁾, 未婚女性의 性經驗³⁾, 10代 女性의 첫 妊娠⁴⁾, 婚前性交의 確率⁵⁾ 등이 각각 발표되었다.

1) Melvin Zelnik and John F. Kantner, The Resolution of Teenage First Pregnancies, *Perspectives*, Vol. 6, No. 2, 1974, p. 78-79.

2) Melvin Zelnik and John F. Kantner, Sexuality, Conception, and Pregnancy among Young Unwed Females in the United States, Commission on Population Growth and the American Future, Research Reports, Vol. 1, Demographic and Social Aspects of Population Growth, pp. 359-374.

3) _____, Sexual Experience of Young Unmarried Women in the United States, *Perspectives*, Vol. 4, No. 4, 1972, pp. 9-18.

4) _____, The Resolution of Teenage First Pregnancies, 1974, op. cit., pp. 74-80.

5) _____, The Probability of Premarital Pregnancies, *Social Science Research*, Vol. 1, No. 3, 1972, pp. 335-341.

이 研究結果는 美國 10代 女性의 높은 婚前性交 및 妊娠率과 낮은 피임실천 등으로 婚前妊娠은 私生兒의 큰 原因이 됨을 밝히고, 이 문제해결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우리나라는 婚前妊娠에 관한 研究가 별로 없다. 金⁶⁾ 등이 結婚年齡 및 家族計劃 調查의 일부로 婚前妊娠을 보고한 바 있다.

婚前妊娠을 취급하지 않았지만 未婚女性에 대한 結婚, 家族計劃, 出產力에 관한 態度調查는 姜⁷⁾, 李⁸⁾ 등, 宋⁹⁾ 등, 宋¹⁰⁾에 의하여 報告되었다. 이들 研究에서 未婚女性은 피임에 대한 지식이 적고, 婚前에 보다 많은 피임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 되었다.

이 研究는 1973年 全國 家族計劃 및 出產力調查에서 수집된 全國規模의 標本資料를 利用하여 現婦人이 婚前期에 경험한 妊娠과 그 結果를 分析한 것이다.

이 研究를 통해 급격한 사회·경제·문화적 변화가 이루어진 1960~73년 기간의 婚前妊娠의 실태가 밝혀지고, 이 結果는 젊은 婦人의 出產力 해석과 婚前期 女性의 家族計劃 및 人口教育에 유용하게 活用될 수 있을 것이다.

2. 資 料

婚前妊娠에 관한 자료는 未婚女性에 대한 面接調查와 既婚婦人에 대한 面接調查를 통해 수집될 수 있다.

未婚女性을 대상으로한 調查는 혼전임신이 사회·윤리적 면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過少報告되기 쉽다. 비교적 性이 開放된 美國에서 15~19歲의 10代 女性을 대상으로한 調查에서 既婚婦人(ever-married)의 妊娠歷(pregnancy history)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¹⁾.

未婚女性 또는 既婚女性을 대상으로한 調查에서 얻은 婚前妊娠率은 조사대상의 年齡集團이 같을지라도 既婚女性에서 얻은 자료에서 훨씬 높다¹²⁾. 이러한 調查對象別 혼전임신자료의 차이는 응답의 정확성에서 유래될 수 있으나, 그 보다 調查時 結婚狀態가 크게 영향을 준다. 調查集團의 특성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本 研究에는 有配偶婦人을 대상으로 한 1973年 全國 家族計劃 및 出產力 調查에서 수집된 妊娠歷(pregnancy history) 資料가 이용되었다.

이 調查는 전국적 규모의 標本抽出에 의해 3,038家口의 15~44歲 有配偶婦人 1,919名에게 面接 調查가 실시되었다¹³⁾.

이들 有配偶婦人에 대한 調查에서 얻은 妊娠歷중 다음 事項에 해당하는 것만이 本 研究에 이

- 6) M. I. Kim, R. V. Rider, P. A. Harper, J. M. Yang, Age at Marriage, Family Planning Practices and Other Variables as Correlates of Fertility,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in the Republic of Korea, Vol. 2, KIFP, 1974, p. 475, Table 1.
- 7) 姜 駿相, 韓國 學生의 家族計劃 및 性에 대한 實態調查 報告書(抄錄), 1970, 家族計劃年報, 國立家族計劃研究所, 1971, pp. 122-129.
- 8) 李 效再·李東瑗, 男·女 大學生의 家族計劃에 대한 態度——둘 낳기 運動에 대한 受容度의 分析——韓國文化研究院論叢, 23집, 1974, pp. 395-434.
- 9) 宋 建鏞·金明姬, 未婚女性의 子女觀 家族計劃 知識 및 態度 調查報告, 家族計劃研究院, 1974.
- 10) 宋 建鏞, 女大生의 人口 및 家族計劃에 대한 態度, 家族計劃論集, 2號, 家族計劃研究院, 1975.
- 11) Melvin Zelnik and John F. Kantner, The Probability of Premerital Intercourse, *Social Science Research*, Vol. 1, No. 3, Sept. 1973, p. 334.
- 12) _____, The Resolution of Teenage First Pregnancies, *Perspectives*, Vol. 6, No. 2, 1974, p. 76.
- 13) 標本抽出 및 應答者數는 宋建鏞·韓聖鉉, 1973年 全國 家族計劃 및 出產力調查——綜合報告——, 家族計劃研究院, p. 13 및 附錄 참조.

용되었다.

- ① 結婚年度는 1960~73年.
- ② 初婚인 것.
- ③ 結婚日이 명확한 것.

1,919名의 有配偶婦人 중 위 事項을 충족한 婦人은 이의 57%인 1,095名이었다. 地域別로 都市에서 596名인 66%, 農村地域에서 499名인 49%가 위 事項을 충족하고 있다. 15~44歲 有配偶婦人 중 1960~73년에 결혼한 婦人의 比率이 도시지역에서 높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러한 차이가 생긴 것이다.

本 研究에서 婚前妊娠은 ① 結婚月 以後 8개월 이내 및 ② 결혼일 이전의 出生, 流産, 死産, 人工流産 등의 妊娠終結 상태 ③ 調査時 결혼일에서 8개월 이내의 結婚期間을 갖고 있으면서 妊娠中인것 등을 고려하여 각 event의 妊娠時期가 結婚月 이전인 것으로 규정되었다. 面接調査 과정에서 특히 각 event의 임신시기가 질문되었고 그 결과는 妊娠歷에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 資料는 婚前妊娠 頻度の 過大 또는 過少 報告의 素地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過大報告 要因;

- ① 妊娠 9個月 未滿의 早産
- ② 結婚日 이전부터의 同棲(事實婚後 결혼식)
- ③ 流産, 死産, 人工流産 등의 정확한 임신기간의 파악 곤란
- ④ 調査時 結婚期間이 8개월 未滿으로서 임신중에 있는 것.

以上 過大報告 要因 중 ③ 및 ④는 동시에 過少報告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過少報告 要因;

- ① 調査期間(reference period)이 1960~73년이기 때문에 결혼시기가 오래된 경우의 기억상실.
- ② 結婚後지만 婚前의 여러 event를 숨기려는 경향

이들 要因 중 어느 것이 本 研究의 資料에 크게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過大보다 過少報告에 보다 큰 영향을 줄 素地는 현실적으로 크다고 본다.

이와 같은 節次에 의해 本 研究에 이용된 資料의 諸特性은 表 1과 같다.

結婚年度

全國적으로 結婚年度가 1965~70年 기간인 比率이 38%, 다음은 1960~64년이 33%였다. 지역별로 都市에서 1965~70年 기간에 결혼한 비율이 가장 높으나, 農촌지역에서는 1960~64년에 결혼한 비율이 가장 높다.

調査時 年齡

調査時 25~29歲인 婦人이 전국에서 39%로서 가장 높고 다음은 30~34세, 24세 以下, 35~39세 順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年齡別 分布의 順位는 地域別로 같지만, 都市地域과 비교하여 農촌지역에서 24歲 以下の 비율이 높고, 반대로 30歲 以下の 비율은 낮다.

出生地

全應答者의 75%는 出生地가 農촌이며, 도시는 23%였다. 지역별로 現 都市居住者의 66%, 現 農村居住者의 87%가 각각 農村地域 出生이었다. 離農向都型 人口移動에 의해 現 都市居住 婦人의 높은 비율이 農村의 배경을 갖고 있다. 반대로 現 農촌지역 거주자의 극히 적은 비율이 都市 出生者였다.

Table 1.

Percent of Respondents by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urrent residence		
	All areas	Urban	Rural
Date of marriage			
1960—64	33%	30%	37%
1965—70	38	40	36
1971—73	29	30	27
Total	100	100	100
(N)	(1,095)	(596)	(499)
Current age at the survey			
—24	21	18	25
25—29	39	39	38
30—34	33	35	32
35—39	7	8	5
Place of birth			
Urban	23	32	12
Rural	75	66	87
Other	2	2	1
Longest residence before marriage			
Urban	35	50	17
Rural	65	50	83
Education			
No schooling	8	5	12
Primary	45	32	60
Middle	21	25	17
High	18	26	9
College or more	8	12	2
Occupation before marriage			
No occupation	66	57	78
Employed for			
1 year	1	1	1
2 years	5	7	2
3 years	6	7	4
4 years or more	22	28	15

N=Number of respondents.

結婚前 最長居住地

全應答者의 35%는 최장거주지가 都市였다. 出生地가 도시인 比率은 23%로서 이보다 높은 비율이 도시에서 婚前에 가장 장기간 거주하였다. 出生後 都市에 移住하여 장기간 거주후 결혼한 比率이 높음을 알 수 있다. 地域別로 現 都市居住者의 50%, 現 農村居住者의 12%가 婚前 最長居住地가 都市였다. 그러나 現 農村居住者의 83%는 婚前 최장거주지가 농촌으로서 이들은 都市의 배경을 별로 갖지 못하고 있는 集團이다.

教 育

全應答者の 53%는 國民學校 또는 無學의 낮은 教育水準을 갖고 있었고, 高校以上の 높은 教育을 받은 婦人은 26%였다. 지역별로 도시지역에서 高校以上の 教育을 받은 婦人의 比率이 38% (농촌지역 11%)로 높았고, 농촌지역에서는 國民學校 또는 無學인 婦人이 72%(도시지역 37%)로 높았다.

婚前就業

全應答者の 66%는 婚前에 就業의 經驗이 없었고, 3년 이상의 就業은 22%로서 就業經驗이 있는 婦人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婚前就業率은 도시지역에서 43%로서 농촌의 22% 보다 높았다. 婚前就業 機會는 도시지역에 높고, 또한 도시지역의 높은 教育水準은 婚前女性의 就業을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3. 結婚年度 및 結婚年齡

1960~73年 期間에 結婚한 婦人의 16%는 結婚前 또는 結婚時 妊娠의 經驗을 갖고 있었다. 地域別로 妊娠經驗率은 都市에서 16%, 農村地域에서 15%로서 지역간 差異가 거의 없다(表 2 參照).

結婚年度別로 최근에 가까워올수록 妊娠經驗率은 增加趨勢를 보이나, 특히 농촌지역에서 현저하다. 1960~64年 기간에 結婚한 婦人의 妊娠經驗率은 全國에서 10%였고, 都市에서 12%, 농촌

Table 2. Percent of Women Experiencing a Premarital Pregnancy at the Time of Marriage among Currently Married Women by Date of Marriage and Residence, 1960-73

Date of marriage	Residence		
	All areas(N)	Urban(N)	Rural(N)
1960	10% (71)	17% (30)	5% (41)
61	15 (72)	14 (36)	8 (36)
62	12 (74)	12 (43)	13 (31)
63	7 (75)	6 (31)	7 (44)
64	10 (72)	13 (38)	6 (34)
65	10 (78)	13 (47)	6 (31)
66	20 (71)	19 (37)	21 (34)
67	18 (85)	18 (44)	17 (41)
68	21 (95)	22 (55)	20 (40)
69	17 (89)	16 (56)	18 (33)
1970	18 (96)	16 (55)	19 (41)
71	20 (84)	14 (42)	26 (42)
72-73	20 (133)	21 (82)	20 (51)
<u>Total</u>	<u>16</u> (,1095)	<u>16</u> (596)	<u>15</u> (499)
1960-64	10 (364)	12 (178)	7 (186)
1965-69	17 (418)	18 (239)	17 (179)
1970-73	19 (313)	18 (179)	22 (134)

N=Number of respondents.

지역에서 7%였다.

그러나 年度別로 농촌지역의 妊娠經驗率은 현저히 증가하여 1970~73년 기간에 都市地域보다 높은 22%였다. 農村地域은 都市와 비교하여 妊娠中에 결혼한 婦人의 比率이 높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結婚의 約束下에 同棲가 용이한 데서 생길 수 있다. 1960年 以來 社會·經濟·文化的 變化는 특히 농촌지역에서 婚前 同棲의 가능성을 확대한 것 같다.

또한 이러한 年度別 높은 婚前妊娠率은 1960~73년 기간에 29歲以下 有配偶婦人의 戒임실천율 증가에도 出産率 저하가 별로 없는 원인이 된 것 같다.

結婚年度와 관련이 크지만, 調查時 應答者의 年齡別 婚前妊娠經驗率은 表 3과 같다. 調查時 年齡이 24歲以下에서의 妊娠率은 가장 높은 23%였고, 이 年齡群에서 그 妊娠率은 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높다.

Table 3. Percent of Women Experiencing a Premarital Pregnancy at the Time of Marriage among Currently Married Women by Current Age, 1960-73

Current age at the survey	All areas(N)	Urban(N)	Rural(N)
-24	23% (227)	21% (104)	24% (123)
25-29	16 (425)	16 (234)	15 (191)
30+	12 (443)	16 (258)	5 (185)
Total	16 (1,095)	16 (596)	15 (499)

N=Number of respondents.

그러나 調查時 30歲以上 婦人의 婚前妊娠率은 12%였고,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5%에 불과하다. 結婚年度別 婚前妊娠率에서 논급된 바와 같이 性의 開放思潮와 同棲 容認의 물결은 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거세게 婚前純潔의 價値觀을 변질시킨 것 같다.

한편 1960~73년 기간에 결혼한 女性의 結婚時 年齡別 婚前妊娠率은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結婚年齡 20歲 未滿보다 25세 이상에서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거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

Table 4. Percent of Women Experiencing a Premarital Pregnancy at the Time of Marriage among Currently Married Women by Age at Marriage and Residence, 1960-73

Age at marriage	All areas(N)	Urban(N)	Rural(N)
Under 20	14% (354)	13% (142)	15% (212)
21-24	16 (594)	18 (340)	14 (254)
25 or over	16 (147)	15 (114)	18 (33)
Total	16 (1,095)	16 (596)	15 (499)

N=Number of respondents.

都市地域에서는 오히려 結婚年齡 21~24歲에서 가장 높은 妊娠率을 보이거나, 농촌에서는 25歲以上에서 가장 높다.

지연된 結婚은 婚前妊娠의 機會를 증대시킬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 資料는 社會·經濟·文化的 諸變化가 급격했던 1960~73年 期間에 일어난 結婚을 취급한 것이기 때문에, 結婚時 年齡보다 結婚年度의 영향을 크게 받음으로써 結婚時 年齡別로 婚前妊娠率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

本 資料에서 婚前性交率은 취급되어 있지 않다. 이 率은 婚前妊娠率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그 水準은 예측할 수 없으나 대단히 높은 상태에 있을 것 같다.

이와 같은 높은 婚前妊娠率은 調査對象으로 有配偶婦人을 삼는데 起因된다. 급변하는 社會·文化的 要因은 結婚을 전제로한 경우 婚前期에는 性的 純潔에 높은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있다.

1971年 美國에서 실시된 15~19歳の 10代 女性을 대상으로한 調査에서, 전체 女性의 婚前 性交經驗率은 30.1%¹⁴⁾였고, 調査時 結婚한 적이 있는 또는 결혼중에 있는 女性(既婚婦人, ever-married)의 婚前 性交經驗率은 58.1%, 未婚인 女性은 27.1%였다.

이들의 婚前妊娠率은 전체 女性의 8.7%(黑人 24.5%, 白人 6.2%)였고, 調査時 既婚婦人(ever-married)의 婚前 妊娠率은 32.3%였다.

또한 이 調査에서 제기된 문제의 하나는 10代 女性에게 일어난 全妊娠의 3/4이 婚前妊娠이란 事實이었다.

이와 같은 美國의 경우와 우리나라 婚前妊娠狀態의 比較에서 먼저 調査對象의 年齡群이 다르고, 우리나라 資料에는 調査時 未婚女性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美國의 10代婦人은 우리나라 婦人이 婚前期에 경험한 것보다 훨씬 높은 임신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婚前期의 純潔에 높은 가치를 둔 우리나라 社會規範은 결혼의 전제하에 또는 혼하지 않겠지만 그러한 전제없이도 婚前性交를 묵인하고 性的 開放이란 方向으로 다름질치는 것 같다.

이러한 思潮는 婚前性交가 피임으로부터 보호되지 못한 때 원하지 않은 妊娠과 出生 또는 私生兒의 發生頻度를 높여 社會問題化할 수 있다.

1971年 美國의 10代女性 調査에서 婚前妊娠중 불과 19.8%¹⁵⁾만이 원한 것이었고, 72.9%는 원하지 않은 것이었다. 원하지 않은 妊娠의 13.1%만이 피임을 사용했고, 대다수인 86.9%는 전혀 피임을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婚前妊娠前 피임에 대한 資料는 없으나, 24歲이하 젊은 有配偶婦人이 낮은 피임실천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추어 婚前期의 피임실천은 이보다 더욱 낮거나 거의 零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지연된 結婚年齡, 性開放思潮, 價值觀의 변화, 거의 無에 가까운 피임실천율 등은 우리나라에서도 婚前妊娠과 그 결과가 社會的 주요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婚前妊娠의 結婚前 또는 結婚時의 종결상태를 보면, 全妊娠의 78%는 結婚時 妊娠中이었고, 7%는 人工妊娠中絶, 15%는 出生 또는 流産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

1971年 美國의 10代女性 調査에서 Ever-married 女性의 婚前妊娠 中 74.4%는 出生, 3.6%는 流産 또는 死産을 경험하였고, 임신중은 22.0%¹⁶⁾였고, 人工妊娠中絶은 전혀 없었다. 특히 調査時 未婚상태에 있는 女性의 全妊娠 中 人工流産率은 19.3%로 높았다.

우리나라 婦人의 婚前妊娠의 終結과 美國의 경우는 대단히 다르다. 우리나라 婦人의 경우 婚前妊娠이 그대로 結婚으로 연결되는 比率이 높는데 반하여 美國에서는 出生의 比率이 높다. 또는 우리나라 婦人은 婚前妊娠을 人工流産으로 처리하지만, 美國의 10代 婦人은 전혀 이 方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美國에서 結婚前에 한국 婦人의 경우보다 훨씬 긴 기간의 婚前性交를 갖고, 한국에서 婚前의 出生은 사회·윤리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가치관의 차이 등에서 생긴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婚前妊娠은 결혼 또는 結婚時期를 앞당기는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美國의 경우 婚前妊娠 중에 결혼한 女性은 34.8%¹⁷⁾(黑人 8.5%, 白人 50.8%)였다.

14) Melvin Zelnik and John F. Kantner, The resolution of Teenage Pregnancies, *Perspectives*, Vol. 6, No. 2, 1974, p. 75.

15) Melvin Zelnik, et al. *Ibid*, P. 76.

16) Zelnik, *Ibid.*, P. 78.

17) Zelnik, *Ibid*, P. 76.

表 5는 結婚年度別 婚前妊娠의 結婚時 終結狀態를 나타낸 것으로서 1960~73년에 각 상태별 분포의 차이는 거의없다.

Table 5. Outcome of Pregnancies before or at the Time of Marriage among Currently Married Women by Date of Marriage, 1960-73.

Outcome of pregnancies	Date of marriage			
	Total	1960-64	1965-69	1970-73
1. Pregnant at the time of marriage	78%	78%	78%	80%
2. Had induced abortion	7	8	7	5
3. Had live birth or fetal death	15	14	15	15
Total	100	100	100	100
(Number of pregnancies)	(170)	(36)	(73)	(61)

調査時 年齡別로 보면 29歲以下는 30歲 以上の 婦人보다 人工流産과 出生 또는 流産의 比率이 높은 반면, 妊娠中에 결혼한 婦人의 比率은 낮다(表 6 參照).

結婚時 婦人의 年齡別 婚前妊娠의 終結狀態를 보면, 25歲 以上에서 결혼한 경우보다 20歲 以下에서 결혼한 경우 人工流産이나 流産, 出生의 比率이 높다(表 7 參照).

Table 6. Outcome of Pregnancies before or at the Time of Marriage among Currently Married Women by current Age.

Outcome of pregnancies	Current age at the survey			
	Total	-24	25-29	30+
1. Pregnant at the time of marriage	78%	76%	76%	83%
2. Had induced abortion	7	8	6	4
3. Had live birth or fetel death	15	16	18	13
Total	100	100	100	100
(Number of pregnancies)	(170)	(51)	(67)	(52)

Table 7. Outcome of Pregnancies before or at the Time of Marriage among Currently Married Women by Age at Marriage, 1960-73

Outcome of pregnancies	Age at marriage			
	Total	-20	21-24	25+
1. Pregnant at the time of marriage	78%	74%	79%	84%
2. Had induced abortion	7	8	7	4
3. Had live birth or fetal death	15	18	14	12
Total	100	100	100	100
(Number of pregnancies)	(170)	(50)	(96)	(24)

20歲以下 婚前妊娠 4件중 1件은 結婚前에 人工流産, 出生, 流産 등으로 終結되고 있다. 이들 妊娠이 現男便과의 所産인지 아닌지 區分할 수가 없으나, 우리나라 現與件下에서 現男便의 所産일 가능성이 크며, 그렇기 때문에 結婚을 女性 또는 男性 어느 쪽 또는 양쪽에서 곤란케 하는 理由가 젊은 女性일수록 심각할 수 있다. 이러한 理由는 결혼을 지연시키게 되어, 結婚前 妊娠중 出生, 人工流産, 流産등의 終結비율이 높아진 것 같다. 結婚年齡別 妊娠率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表 4 參照) 20歲 以前에 결혼한 婦人이 性交를 가진 期間도 긴듯하다. 젊은 年齡에 結婚한 女性일수록 임신중결 比率이 높은 것으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나이가 많아서 결혼한 즉 女性의 平均初婚年齡(1973年 22.3세)을 경과한 女性의 대부분은 婚前妊娠의 종결보다 이를 결혼에 연결시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신중에 결혼한 婦人의 比率이 높다.

4. 最長居住地 및 出生地

婚前妊娠은 婚前의 最長居住地 및 出生地와 약간의 관련성이 있다. 表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都市에서 出生한 경우와 都市에서 오래 거주한 現 都市居住婦人의 婚前妊娠率은 강한 농촌배경을 갖는 婦人보다 높다.

都市에서 出生하여 都市에 거주하고 있는 婦人의 婚前妊娠率은 19%였고, 現 都市居住 婦人 중 農村出生 婦人의 경우 15%였다.

婚前最長居住地를 보면 現 都市居住者중 도시가 최장거주지인 婦人의 婚前妊娠率은 19%였고, 농촌이 최장거주지인 경우 13%였다.

現 農村居住 婦人중 都市出生과 農村出生 婦人 간 婚前妊娠率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婚前 최장거주지가 都市인 경우 婚前妊娠率은 23%로서 최장거주지가 농촌인 부인의 13%보다 훨씬 높다.

Table 8. Percent of Women Experiencing a Premarital Pregnancy at the Time of Marriage among Currently Married Women by the Longest Residence and Place of Birth, 1960-73

	Current residence at the time of the survey		
	All areas(N)	Urban(N)	Rural(N)
Longest residence before marriage			
Urban	20% (383)	19% (297)	23% (86)
Rural	13 (712)	13 (299)	13 (413)
Total	16 (1095)	16 (596)	15 (499)
Place of birth			
Urban	18 (251)	19 (191)	17 (60)
Rural	15 (826)	15 (392)	15 (434)
Total	16 (1077)*	16 (583)	15 (494)

*=Excludes 17 cases with incomplete information and born overseas.

N=Number of respondents.

婚前妊娠은 婦人의 成長地域과 관련성이 크며, 出生地보다 婚前 最長居住地가 혼전임신에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都市는 傳統에 대해 獨立의이고 또한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에 적극적인 特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都市環境은 농촌의 경우보다 훨씬 더 婚前妊娠을 높이는 要因이 된 것 같다.

表 9는 婚前 最長居住地와 出生地別 婚前妊娠의 終結狀態를 나타낸 것이다.

婚前 최장거주지 또는 出生地가 都市인 婦人은 농촌인 婦人보다 임신중에 결혼한 比率이 약간 높다. 최장거주지가 都市인 부인의 임신중 결혼율은 전임신의 81%이며 농촌인 경우 77%였고. 出生地가 도시인 婦人의 임신중 결혼율은 80%, 농촌인 경우 78%였다.

그러나 지역적 배경에 따른 차이는 妊娠終結 상태에서 크다. 都市가 婚前 最長居住地인 婦人

Table 9. Outcome of Pregnancies before or at the Time of Marriage by the Longest Residence before Marriage and by Place of Birth, 1960-73.

Outcome of pregnancies	All areas(N)	Urban(N)	Rural(N)
	<u>The longest residence before marriage</u>		
1. Pregnant at the time of marriage	78%	81%	77%
2. Had induced abortion	7	10	5
3. Had live birth or fetal death	15	9	18
Total	100	100	100
(Number of pregnancies)	(170)	(77)	(93)
	<u>Place of birth</u>		
1. Pregnant at the time of marriage	78	80	78
2. Had induced abortion	7	11	5
3. Had live birth or fetal death	15	9	17
Total	100	100	100
(Number of pregnancies)	(169)	(45)	(124)

의 人工妊娠中絶率は 全婚前妊娠의 10%이지만, 농촌인 경우 5%였고, 出生地가 都市인 경우 人工流産率は 11%, 농촌인 경우 5%였다. 婚前에 都市圈에 장기간 거주한 婦人은 농촌의 경우보다 혼전임신을 人工流産으로 처리하는 比率이 높다. 都市에서 이를 위한 醫療施設의 利用이 용이하하다는 점이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반해 婚前妊娠의 出生, 流産, 胎兒死亡 등의 比率은 농촌의 배경을 갖는 婦人이 도시의 배경을 갖는 婦人보다 높다.

도시가 최장거주지인 婦人에서 이 比率은 9%인데 비하여 농촌인 경우 18%였고, 出生地가 도시인 婦人에서 이 比率은 9%, 농촌인 경우 17%였다.

이들 임신의 대부분이 원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은 크지만, 人工流産을 위한 의료시설의 이용이 농촌지역에서 비교적 어렵거나 또는 婚禮전에 사실상 同棲하는 경향이 농촌의 배경을 갖고 있는 婦人에서 비교적 강함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온 것 같다.

5. 婚前 教育 및 就業

1) 教 育

女性の 教育水準은 婚前妊娠 증가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表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無學의 婚前妊娠率は 9%였고, 教育水準이 높아짐에 따라 이 率は 증가하여 大學教育水準의 婦人에서 25%에 달한다.

現 居住地別로 도시나 농촌에서 다 같이 教育水準이 높아짐에 따라 婚前妊娠率도 증가한다.

都市 居住者중 無學인 婦人의 혼전임신율은 4%에 불과하나 大學 教育을 받은 婦人에서 23%로 증가된다.

농촌 거주 婦人 중 無學인 婦人의 혼전임신율은 12%로서 도시지역 거주婦人의 혼전임신율보다 훨씬 높다. 教育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婚前妊娠率は 증가하여 특히 高等學校 이상 婦人의 혼전임신율은 도시 거주 婦人보다 훨씬 높다.

Table 10. Percent of Women Experiencing a Premarital Pregnancies at the Time of Marriage among Currently Married Women by Education and Residence, 1960-73

Education	Residence		
	All areas(N)	Urban(N)	Rural(N)
No schooling	9%(88)	4%(28)	12%(60)
Primary	12 (491)	11 (191)	13 (300)
Middle	17 (235)	18 (148)	17 (87)
High	21 (198)	20 (156)	25* (52)
College or more	25 (83)	23 (73)	
Total	16 (1095)	16 (596)	15 (499)

*=Includes respondents with college education.
N=Number of respondents.

教育水準의上昇은 결혼연령의 연장에 크게 作用하지만¹⁸⁾ (1970~73년 初婚年齡, 國民學校 22.5세, 大學 24.3세), 결혼연령과 혼전임신 간에 별로 連貫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表 4 參照), 높은 教育水準이 婚前妊娠의 증가에 영향을 준 여건을 조성한 것 같다. 婚前 男女交際의 機會擴大, 전통적 純潔觀念의 타파와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 등에 높은 교육수준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婚前妊娠의 婦人 教育水準別 종결상태를 보면(表 11 參照), 中學校 以下の 教育을 받은 婦人보다 高校 以上の 教育을 받은 婦人이 임신중에 결혼한 比率이 높은 반면, 出生, 流産, 死産 등을 경험한 比率은 이와 반대로 낮은 教育水準의 婦人에서 높다.

Table 11. Outcome of Pregnancies before or at the Time of Marriage among Currently Married Women by Education, 1960-73

Outcome of pregnancies	Total	Primary or below	Middle	High	College
1. Pregnant at the time of marriage	78%	76%	67%	88%	81%
2. Had induced abortion	7	6	10	7	10
3. Had live birth or fetal death	15	18	23	5	10
Total	100	100	100	100	100
(Number of pregnancies)	(170)	(68)	(40)	(41)	(21)

人工妊娠中絶 경험율은 教育水準別로 일관적인 경향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러한 教育水準別 혼전임신의 종결상태는 교육수준이 낮은 婦人에서 婚禮前에 사실상 同棲하는 比率이 높은데서 이러한 차이가 나올 수 있다. 즉 婚前性交 기간은 교육수준이 낮은 婦人이 높은 婦人보다 長期的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높은 教育을 받은 婦人은 결혼 예정일을 豫見하고 性行爲를 갖는다는 性行爲에 대한 態度의 차이에서 혼전임신의 종결상태별 分布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2) 婚前就業

應答者의 34%는 婚前에 職業을 가졌고, 4년이상 취업한 婦人은 22%였다. 지역별로 도시거주 婦人의 혼전 就業率은 43%, 농촌에서 22%였다.

18) 宋建鏞, 韓聖鉉, 1973年 全國 家族計劃 및 出生力調查 綜合報告, 家族計劃研究院, 1974, p. 223.

表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婚前에 就業한 經驗이 없는 婦人의 婚前임신율은 13%로서 3년 이내 就業한 婦人의 26%, 4년이상 就業한 婦人의 19%보다 낮다.

지역별로 都市나 農촌에서 就業 經驗을 가진 婦人의 婚前 임신율이 높다.

就業의 經驗을 가진 婦人 중 3년 이내 就業한 婦人은 4년이상 就業한 婦人보다 도시나 農촌에서 다 같이 婚前 임신율이 높다.

婚前의 就業이 婚前임신에 크게 影響을 주고 있다. 就業機會는 教育水準의 向上에 의해 擴大되고, 女性의 就業機會는 최근에 가까워올수록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教育과 結婚年度 등이 다 같이 就業別 婚前임신율에 複合的으로 影響을 준 것으로 보인다.

Table 12. Percent of Women Experiencing a Premarital Pregnancy at the Time of Marriage among Currently Married Women by Occupation and Residence, 1960-73

Occupation before marriage	All areas(N)	Urban(N)	Rural(N)
No occupation	13% (725)	12% (338)	13% (387)
Employed for			
3 or less years	26 (128)	26 (92)	25 (36)
4 or more years	19 (242)	20 (166)	18 (76)
Total	16 (1095)	16 (596)	15 (499)

N=Number of respondents.

또한 就業은 男女交際의 機會를 확대하며, 女性의 婚前 就業은 결혼의 준비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전통적 순결의 가치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높은 婚前임신의 한 原因이 될 수 있다. 특히 就業기간이 3년이내의 婦人이 4년이상 婦人보다 婚前妊娠率이 높은 것은 就業이 결혼의 준비로 活用됨으로써 임신이 결혼을 촉진한 한 증거가 될 수 있다.

婚前妊娠의 종결상태별 分布를 보면(表 13 參照), 임신중에 결혼한 婦人의 比率은 就業 經驗 또는 취업기간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으나, 就業기간이 3년 이내인 婦人에서 人工流産率이, 未就業 또는 4년 이상 就業한 婦人에서 出生, 流産, 死産 등의 比率이 각각 비교적 높다.

Table 13. Outcome of Pregnancies before or at the Time of Marriage among Currently Married Women by Occupation, 1960-73

Outcome of pregnancies	Total	No occupation	Employed for	
			3 or less yrs.	4 or more yrs.
1. Pregnant at the time of marriage	78%	80%	79%	77%
2. Had induced abortion	7	4	12	6
3. Had live birth or fetal death	15	16	9	17
Total	100	100	100	100
(Number of pregnancies)	(170)	(91)	(33)	(46)

이러한 就業상태별 婚前임신의 종결상태 分布는 여기서 명확히 설명될 수 없다. 다만 就業의 經驗을 가진 婦人은 就業經驗이 없는 婦人보다 人工流産率이 높고, 반대로 出生, 流産, 死産 등의 比率이 낮으며, 就業한 婦人은 도시에 거주하고 또한 비교적 높은 教育을 받았다는 요인 등이 이에 影響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6. 要約 및 結論

要 約

1973年 全國 家族計劃 및 出產力調查에서 수집된 15~44세 有配偶婦人의 妊娠歷資料를 이용하여 1960~73년 기간에 결혼한 婦人의 婚前妊娠 및 그 結果를 分析하였다.

1. 1960年 以來 婚前妊娠率은 증가추세에 있다. 즉 1960년의 10%에서 1972~73년에 20%로 2倍 증가되었다.

지역별로 농촌지역의 혼전임신율의 증가는 현저하다. 1960년의 5%에서 1972~73년에 20%로 이 기간에 4배 증가되었다. 1972~73년의 지역간 婚前妊娠率은 거의 차이가 없다.

2. 結婚年齡의 延長은 婚前妊娠率을 약간 높인다. 결혼연령 20세이하에서 혼전임신율은 14%였고 21세이상에서 16%였다. 지역별로 都市에서 결혼연령 21~24세에서, 농촌에서 25세 이상에서 각각 가장 높은 婚前妊娠率을 나타내고 있다.

3. 年度別 婚前妊娠率의 증가는 29歲이하 婦人에서 현저하다. 이 연령층의 높은 婚前妊娠率은 1960~73년 기간에 이 연령층의 높은 年齡別 出產率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4. 全婚前妊娠의 78%는 結婚時 임신중이었고 결혼전에 人工流產으로 종결된 것은 7%, 出產, 流產 및 死產으로 종결된 것은 15%였다.

결혼연도별로 婚前妊娠의 종결分布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結婚年齡이 지연된 婦人에서 결혼시 임신중인 비율이 높고, 반대로 20세이하에서 결혼한 婦人 중 結婚前에 人工流產, 出產, 流產, 死產 등으로 종결된 비율은 비교적 높았다.

5. 都市出生 및 婚前最長居住地가 都市인 婦人의 婚前妊娠率은 농촌의 배경을 갖고 있는 婦人보다 높았다. 또한 婚前妊娠의 종결상태에 있어 前者에서 結婚時 妊娠中 및 婚前 人工流產의 比率이 높는데 반해, 後者에서 婚前 出生, 流產, 死產의 比率이 높았다.

6. 教育水準이 높아짐에 따라 婚前妊娠率은 증가한다. 無學에서 9%였고, 大學에서 25%였다.

7. 婚前에 就業 經驗을 가진 婦人은 그렇지 않은 婦人보다 婚前妊娠率이 높았다.

結 論

1. 우리나라 婦人의 婚前妊娠率은 대단히 높고 年度別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傾向은 29歲以下 婦人의 높은 出產力에 크게 영향을 준다.

2. 높은 教育, 就業, 都市居住 등은 婚前妊娠의 증가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3. 婚前妊娠 및 이로 인하여 야기될 諸問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婚前期에 生殖生理, 妊娠, 避妊 등에 관한 계몽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學生에게는 學校教育을 통한 體系的 教育이 그리고 學校 밖에 있는 未婚女性을 위해 社會教育이 각각 이 目的을 위해 최대로 活用되어야 한다.

Premarital Pregnancies of Currently Married Women in Korea, 1960-1973

by Kun Yong Song

The Data

The data were derived from the pregnancy history section of the 1973 National Family Planning and Fertility Survey. The respondents numbered 1,919 currently married women aged 15-44 years. Among the respondents 1,095 women married during 1960-73 were used for this study.

Main Findings

(1) Premarital pregnancies among currently married women have increased since 1960; the rate was 10 percent in 1960 and 20 percent in 1972-73.

Premarital pregnancies in rural areas increased remarkably, from 5% in 1960 to 20 percent in 1972-73. The rat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show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1972-73.

(2) Increased age at marriage is reflected somewhat in the increase of premarital pregnancies; the rate was 14 percent for women married at under 20 years of age, and 16 percent for women married at 21 to 24 years.

High and unchanged age-specific fertility rates for women under age 29 or below might have resulted from the increased premarital pregnancies for the period 1960-73.

(3) Among all premarital pregnancies, 78 percent were currently pregnant at the time of marriage and 22 percent were terminated prior to marriage; 7 percent by induced abortions and 15 percent by live births or fetal deaths.

(4) Urban setting (place of birth or the longest residence before marriage), high level of education, and employment before marriage increased premarital pregnancies.

Conclusions

(1) Premarital pregnancies were surprisingly prevalent prior to marriage in Korea. A majority of the premarital pregnancies were likely the result of contact with their present partner. The tendency of premarital pregnancies to increase will continue in the future.

(2) The increased premarital pregnancies resulted from lack of protection against the risk of pregnancy prior to marriage. Information on conception, reproduction, and contraception should be provided before marriage through formal school education and various media.

(3) Family planning service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should be available to women before marriage for guidance in family life and prevention of pregnancy.